

이슈 현장 남구 양과동에 물리는 환경기초시설...RDF 설치 반발

주민들 “폐기물처리 집합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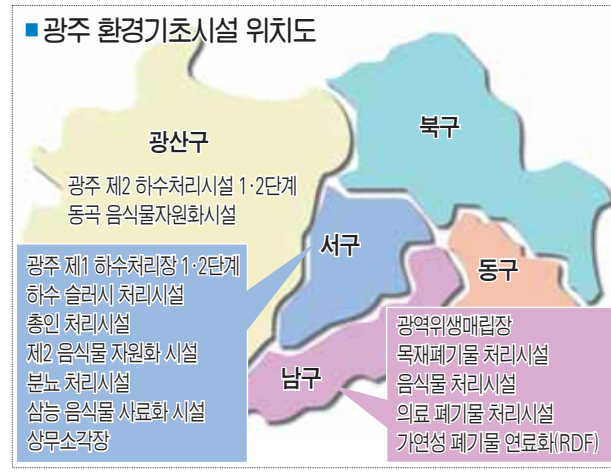
광주시 “환경시설 집적화 필요”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민이 매일 쏟아내는 생활쓰레기를 묻는 광역매립장을 비롯해 이미 양과동만 4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모여있다는 점을 들며 RDF시설의 타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반면 광주시는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설인만큼 타 지역 설치는 효율성 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최근 'RDF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RDF 설치 저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RDF는 물론 주민의 동의 없이 의료폐기물, 목재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민간 협회시설까지 남구 양과동으로 모두 들어오고 있다”며 “RDF사업을 비롯한 환경협회시설의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하



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위생 매립장에서 반경 2km 밖에 거주하는 남구 대촌동과 송암동 주민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광주시가 지난 2005년 광역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지원(보상) 대상지역을 반경 2km이내(양과동)로만 한정해 그의 지역의 감정의 화를 깊어졌다는 게 일부 주민의 말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반경 2km이내(양과동)에만 주민지원금 40억원이 출연됐으며, 매년 폐기물 수수료의 10%(5~6억원)가 지원되고 있어서다. 또 속원사업비 346억원 중 288억원도 집행된 상태다.

남구 대촌과 송암동 일부 주민들은 “환경피해는 똑같이 보면서 특정이



셋노랑게 피어나는 봄 10일 화순을 이삼곡리 소아르 갤러리 부근에 산수유가 만개해 봄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는 평년보다 10일 정도 개화 시기가 빠른 것이다. 전남 광주 최고 온도는 26.8도로 관측이래 3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

안의 귀환... 야권 '빅뱅' 오나

오늘 귀국... 호남 '안철수 신당' 지지를 민주당보다 높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귀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안 전 교수의 행보에 따라 야권 발(發) 정계개편이 뒤따르는 등 현재의 정치지형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안 전 교수가 양당 체제의 틀바꾸니에서 '안철수식 새정치' 구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존 야당의 비판적 시각도 안 전 교수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기성 정당이 여전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 전 교수의 정계 복귀는 기성 정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남북 군사 긴장 고조

한미 양국군이 11일부터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할 예정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위로 치달고 있다.

이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 백지화를 예고해 둔 북한은 훈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위협 공세를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0일 “계획된 일정대로 11일부터 21일까지 키 리졸브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 등도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이번 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법성~홍농 영광원전 대피로 신설

550억 투입 2015년 착공

영광 주민의 숙원사업인 영광원전 유사시 대피로 건설이 확정됐다. 전남도와 정부가 법성~홍농간 4차로 국가지원 지방도 신설 건설에 합의, 조만간 실시계획에 들어간다.

2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것과는 달리, 영광원전 주변에는 변변한 대피로가 없어 전남도는 그동안 법성~홍농간 4차로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영광원전 대피 도로 개념도



면 2015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영광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경 10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홍농면 등 3개읍·면 6500여세대에 1만4900여명이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긴급 대피해야 하지만, 현재 탈출로는 법성~홍농간 2차로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NBANG BIO | 一理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시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